

1. 주제 (Thesis)

- 개인의 생애를 이해하는데는 그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, 이를 위해 배경(background)과 상황(context)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.
 - 배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(사진관의 배경사진처럼). 하지만, 상황(context)은 우리 현재의 일부분이며, 우리는 그 미래의 한 부분이고, 따라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. (p.80)

2. 문제점 (Problems)

-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을 1 세기 그 장소의 산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상황적 모체(matrix: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것)는 무엇인가? (p.80)
- 상황 또는 모체는 기독교 2 천년의 해석 과정을 통해 적어도 세 개의 층(layer)으로 발전되었다.
 - 1) 기독교 안에서만; 2) 2 차 세계대전 이후: 기독교와 유대교 안에서; 3) 20 세기 말엽~21 세기 초: 기독교, 유대교, 로마제국 안에서
 - 우리의 현재는 언제나 그들의 과거와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 (p.82).
- 로마제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대충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의 상황이며, 이는 물론 로마의 왕국에 맞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이다 (p.82-83).

3. 논점 (Argumentation):

1) 다섯 번째 왕국, 세상의 마지막 왕국 (기원전 2 세기 중엽부터)

로마의 제국적인 왕국 (p.83-91)	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 (p.92-9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왕을 세우는 대신에 귀족중 2 명의 집정관을 뽑음 : 집정관 1 명 서부로 진격 — 갈리아 지방 정복, 약탈 : 다른 집정관 동부로 진격 — 시리아 정복, 약탈 → 집정관들이 군벌이 됨으로써, 20 년의 내전 돌입 율리우스 카이사르 vs.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의 추종자들 vs. 카이사르의 암살자들 옥타비누스 vs.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기원전 31.9.2.: 악티움 해전에서 내전 종결 — 로마 공화정에서 제국 군주정 시작 → 옥타비아누스 — 아우구스투스(신적인 존재) 또는 세바스토스 (예배를 받으실 분) 칭호 • 로마의 패권은 다음 네 가지 힘이 모두 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사력: 병력과 폭력의 독점 또는 장악, 사회적 기반시설 건설도 포함. 2) 경제력: 노동과 생산의 독점 또는 장악, 교역과 상업 — 군단 경제 3) 정치력: 조직관 제도의 독점 또는 장악 4) 이데올로기: 의미와 해석의 독점 또는 장악 (p.89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말론(eschatological): 세상의 파멸이 아닌, 천지개벽 즉, 악, 불의, 폭력, 그리고 제국주의 종결 :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청소(Great Divine Clean up of the World) •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사후, 셋으로 분할. 그리스-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는 그 한 부분을 통치했으며, 기원전 160 년대 초,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신의 영토에 통합시키려 함. • 일부 유대인들은 성공적인 군사적 저항을 펼쳤고, 다른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문제가 아닌, 하나님과 제국의 문제라고 여김. • 이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며 7 장 다니엘의 꿈에 초점. • 무질서한 바다에서 솟아나는 야생 짐승들로 묘사된 네 대제국: 바빌로니아, 메대, 페르시아, 마케도니아 : 그 중 네 번째 제국, 즉 마케도니아는 가장 강력 — 전투에서의 승리 뿐 아니라 적군들의 전멸이 목적 → 이 때, 다니엘의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에 대한

-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적 힘에 대해 다름.
- 로마 황제,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호칭: 신적인 존재(Divine), 신의 아들(Son of God), 신에게서 태어난 신(God from God), 주님(Lord), 구원자(Redeemer), 해방자(Liberator), 구세주(Savior of the World)
- 즉, 인간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한 존재였다.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(아우구스투스)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위해 승리를 통한 평화 프로그램을 선포했다 (p.90-91).
-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에게 언제나 중요했던 것은 평화였지만, 그 평화는 승리, 전쟁, 폭력을 통한 평화였다 (p.91).
- 지상의 평화를 위한 대안적인 비전(alternative vision)은?

비전이 나타남
: 7:10-12, 모든 제국들과 더불어 제국주의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. 그리고, 다섯 번째 마지막 제국만이 '참으로 사람다운 모습'이라는 점이 관건.

→ 짐승으로 묘사된 네 제국이 그 제국의 공동체를 나타내듯, 사람과 같은 개인도 그 공동체 전체를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하다.

- 그렇다면, 로마제국과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의 차이점은?

: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은 정의를 통한 평화에 그 목적이 있다.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가족에게, 누구에게나 언제나 똑같이 평등하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.

2)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.

-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(즉 유대인들을 항상 억압해왔던 대제국들의 민족들)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?
 - 므깃도 산, 마지막 큰 싸움 (미가 5:15; 7:10, 16-17): 폭력 - 멸절
 - 시온 산, 마지막 큰 잔치 (미가 4:1-4; 이사야 25:6-8): 비폭력 - 회심

→ “이 둘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어느 것을 선언하는가? 누가복음의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‘땅에서는 평화’를 선언할 때, 이 평화는 승리를 통한 평화인가 아니면 정의를 통한 평화인가?” (p.101)

- 대변혁을 위해 중개자, 관리자, 또는 대리인을 사용하실 것인가?
 - 기독교 이전,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두 가지 사례
 - 솔로몬의 시편(Psalms of Solomon): ‘다윗의 아들 (Son of David)’과 ‘주 메시아 (Lord Messiah)’
 - 쿰란의 제 4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조각 4Q246: ‘하나님의 아들(Son of God)’과 ‘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(Son of the Most High)’

→ 이 두 가지 사례는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: 1) 폭력적 vs. 비폭력적; 2) 인간 vs. 초월적 존재

- 하지만 중요한 것은, 이 세상을 위한 비전(제국의 폭력적 힘을 통한 평화/ 종말론의 비폭력적 정의를 통한 평화)과 프로그램의 충돌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의 모체로, 로마제국에 맞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!

3) 예수의 탄생 무렵 갈릴리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?

- “로마인들은 멀리 떨어진 신화적인 존재들이 아니라, 예수가 태어났을 무렵에 나사렛의 뒷마당을 유린했던 군인들이었다.” (p.108) “그들은 황무지를 만들어놓고는 그것을 평화라 부른다.” (p.107)

4. 평가 (Critique)

- 역사적 ‘상황’에 대한 설명이 예수가 태어났을 무렵의 사회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.

5. 생각해보기

- 나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‘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의 상황’은 어떤 의미인가?